

2023. 11. 1.(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2133-4950
자율주행팀장	최종선	2133-4961
담 당 자	김진구	2133-496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6매

서울시, 가상현실(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 성황리 마무리...전국 자율차 인재 경연

-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24개 팀 한자리에 모여 자율주행 기술 뽐내
- 온라인 가상현실에서 벌이는 치열한 “자율차 레이싱 경쟁”을 선보이는 색다른 경험 제공
-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10시부터 예선 진행, 17시에 5개팀이 참여하는 최종 결승전 선보여
- 1위 충북대, 2위 국민대 입상... 결승진출 5개팀 전원에 서울시장상·네이버랩스 채용 시 서류통과 특전
- 자율차 인재 육성, 산업 발전 지원 계기...“최고 수준 자율주행 가상현실 주행 환경 지속 구축”

-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랩스·모라이와 함께 온라인 가상현실세계에서 미래 세대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맘껏 뽐내는 “제1회 서울 가상현실(버추얼) 자율주행 챌린지”를 10.30일(월),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챌린지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총 24개 팀이 참여하여 10시부터 치열한 예선전을 치렀으며, 16시 예선결과를 토대로 최종 5개팀을 선발하여 최종 결승전을 벌였다.
- 챌린지 경기방식은 가상현실세계로 구현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동시에 출발시켜 ▲최단경로 주행 ▲차로변경 ▲교통신호준수 ▲돌발상황 및 불법주정차 회피

▲고속주행 ▲기상상황 대처 등 주어진 임무(미션)를 법규 위반 없이 수행하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했다.

○ 특히, 실제 도로환경에서는 안전상 경연이 어려운 고속주행, 기상상황 변화 시 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겨뤄 가상현실 세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도입했다.

□ 최종 결과 1위(최우수상)는 충북대 Phoenix팀, 2위(우수상)은 국민대 Vilab팀, 3위(장려상) 가천대 AMSL팀, 영남대 All Right팀, 영남·홍익·중앙대 연합 발상의 전환팀으로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수행 능력을 선보이며 입상했다.

□ 서울시는 대회 주관 기업들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준 결승전 진출 5개팀 입장자에게 서울특별시장상을 모두 수여하며 자율주행 인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1위팀은 최우수상과 상금 500만원, 2위팀은 우수상과 상금 300만원, 3위 3개팀에는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결승 진출 모든 입상자에게는 네이버 랩스 채용 시 서류전형 통과 등 특전도 제공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대회가 모든 대회참가자에게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좋은 추억이 되는 경험의 장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가상현실 주행 환경을 지속 구축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꽃을 피우는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2

최종순위

순 위	소 속	팀 명	팀 원	비 고
1위 (최우수상)	충북대학교	Phoenix	2	1위
2위 (우수상)	국민대학교	Vilab	5	2위
3위 (장려상)	가천대학교	AMSL	5	3위
	영남대학교	@오라이(@All Right)	3	4위
	연합팀 (영남대, 홍익대, 중앙대)	발상의 전환	3	5위

